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홍 석 룰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1950년대 한국·남베트남 간  
반공 연대와 균열

- 이승만과 응오딘지엠의 상호 방문을 중심으로 -

2023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서 혜 인

1950년대 한국·남베트남 간  
반공 연대와 균열

- 이승만과 응오딘지엠의 상호 방문을 중심으로 -

홍 석 룰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서 혜 인

# 인 준 서

서혜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조 국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김 도 민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홍 석 료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논문개요

이 논문은 1950년대 한국과 남베트남 정상의 상호 방문을 중심으로 냉전기 제3세계 반공 국가의 움직임과 그들 간의 횡적 교류를 분석하였다. 특히 냉전의 제3세계성에 주목하여, 냉전기 미국의 하위동맹국이었던 한국과 남베트남이 약소국가 간에 이룩하고자 했던 연대와 그 이면에 존재했던 균열의 지점들을 살펴 보았다.

남베트남 수립 초기부터 이승만 정부는 한국과 남베트남이 처한 상황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남베트남이 한국과 같은 강력한 반공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했다. 남베트남 또한 한국과 정식으로 수교하기 이전부터 한국이 주도한 반공대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함으로써 신생 반공 국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1957년 9월에 응오딘지엠이 먼저 한국을 방문했으며, 그 이듬해인 1958년 11월에는 이승만이 남베트남을 방문했다. 두 정상의 방문은 유사하면서도 사뭇 다른 성격으로 이루어졌다. 응오딘지엠과 이승만 모두 방문 국가에서 군사 분야에 치중된 일정을 소화했다. 두 정상이 순방 중 발표한 성명 역시 양국 간 반공 연대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과 남베트남은 함께 반공 연대를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그 범위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입장에 차이를 보였다. 응오딘지엠이 한국 사회의 여러 분야에 관심을 보인 것과 달리, 이승만은 군사 분야를 제외하면 사실상 남베트남 사회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남베트남은 한국이 중립주의 자체에 반대하고 아시아 국가 간의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데 동조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균열의 지점은 양국 정부 지도자들의 상호 인식에서 잘 드러난다. 한국 정부 지도자들은 남베트남을 아시아에서 함께 대공 투쟁을 전개해야 할 우방

국가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 의해 더 강력한 반공주의 노선으로 인도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했다. 남베트남 정부 지도자들은 한국의 소극적인 외교와 극단적인 반공주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과 남베트남 정상의 상호 방문과 인식은 냉전기 제3세계 반공 국가로서 양국의 주체성을 잘 보여준다.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던 양국의 관계와 연대 구축이 냉전기 한국의 주체성을 보여주는 사례였다면, 이 관계 안에서의 균열은 같은 시기 남베트남의 주체성이 더 드러나는 사례에 해당했다.

# 목 차

논문개요

머리말 .....	1
I. 이승만 정부의 반공 동맹외교와 남베트남과의 수교 .....	8
II. 한국·남베트남 정상의 상호 방문 외교 .....	17
1. 1957년 응오딘지엠의 한국 방문 .....	17
2. 1958년 이승만의 남베트남 방문 .....	27
III. 한국·남베트남의 상호 인식 .....	35
1. 한국 정부 지도자들의 남베트남 인식 .....	35
2. 남베트남 정부 지도자들의 한국 인식 .....	40
맺음말 .....	46

참고문헌

ABSTRACT

## 표 목차

〈표 1〉 제1차 아시아민족반공대회 국가별 대표 구성 .....	13
〈표 2〉 응오딘지엠 방한 주요일정(1957.09.18.~22.) .....	22
〈표 3〉 응오딘지엠 방한 당시 수행원 명단 .....	23
〈표 4〉 이승만 방월 당시 수행원 명단 .....	31
〈표 5〉 4월 방월 계획상의 수행원 명단(안) .....	32
〈표 6〉 이승만 방월 주요일정(1958.11.06.~07.) .....	33

## 그림 목차

[그림 1] 응오딘지엠의 내한을 환영하는 이승만 .....	19
[그림 2] 환영 행사장에 함께 서 있는 이승만과 응오딘지엠 .....	29

## 머리말

외교 업무는 자국을 대표해 외국에 파견된 외교관이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원수나 수상 등 실질적으로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대표자가 직접 교섭에 나서는 정상외교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정상외교는 국가 간의 중요 현안을 최고위급 수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는 외교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를 연구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대외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중요한 작업이다.

특정 시기 어느 국가의 정상외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해당 국가 지도자의 해외순방 기록을 살펴봐야 한다. 물론 지도자의 모든 해외순방이 다 정상외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행사는 대개 방문 국가 대표자와의 회담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승만의 해외순방은 일본이 3번, 미국과 대만, 남베트남이 1번씩으로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러나 3번의 일본 방문 중 앞선 2번(1948년 10월, 1950년 2월)은 공식적인 목적이 일본에 주재하고 있던 맥아더 원수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고, 일본 정부 인사와의 만남은 비공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까닭에 정상외교로는 볼 수 없다. 마지막 일본 방문(1953년 1월) 때는 이승만과 요시다 시게루 총리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나, 당시 한국과 일본은 국교를 수립하기 이전이었으므로 이 또한 정상외교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승만의 해외순방 가운데 정상외교로 볼 수 있는 것은 미국, 대만, 남베트남이 1번씩인 총 세 차례이다. 하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초대로 한국 통일문제 토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1954년 7월)했던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승만 자신이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아시아 국가를 순방한 것은 대만 방문(1953년

11월)과 남베트남 방문(1958년 11월)의 단 두 차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시기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 정상 역시 장제스 대만 총통(1949년 8월)과 응오딘지엠 남베트남 대통령(1957년 9월)뿐이었다는 사실이다. 1952년에는 아이젠하워가 한국을 방문해 이승만과 만나기도 했으나, 당시 그는 국가 정상이 아닌 당선인 신분으로 방한한 것이었다. 1960년에도 이승만의 초청에 따라 또 한 차례 아이젠하워의 방한이 예정되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가 방한하기 이전에 4월혁명으로 인해 이승만 정권이 붕괴하여 두 사람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정리하자면, 이승만 정권기에 양 국가의 정상이 각각 상호의 국가를 방문하는 온전한 형태의 정상외교가 이루어진 횟수는 단 두 차례에 그쳤다. 이러한 사실은 곧 이 시기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대만과 남베트남을 상대로 하는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매우 컸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이승만 정권의 외교 기조는 '대미 일변도'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시기에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던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대미 일변도'만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는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했다.

이승만은 일찍부터 대만의 장제스, 필리핀의 키리노와 함께 태평양동맹의 창설을 구상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서 반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 나아가 한국이 그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sup>1)</sup> 이승만이 비슷한 시기에 각각 중국과 북베트남의 공산주의 정권과 대립하고 있던 대만과 남베트남을 직접 방문한 데는 그 기저에 아시아에서 반공 연대를 구축하고자 했던 그의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

1) 노기영, 「이승만정권의 태평양동맹 추진과 지역안보구상」, 『지역과 역사』 11, 2002; 박진희, 「이승만의 대일인식과 태평양동맹 구상」, 『역사비평』 76, 2006; 최영호, 「이승만 정부의 태평양동맹 구상과 아시아민족반공동맹 결성」, 『국제정치논총』 39, 1999.

그 가운데서도 남베트남 방문은 시기적으로 이승만의 다른 해외순방과도 구분된다. 남베트남 방문이 성사된 1958년 당시 이승만은 이미 여든을 넘긴 고령의 대통령이었다. 마지막 해외순방으로 미국을 다녀온 1954년으로부터도 벌써 4년이 더 지난 시점이었다. 장시간의 비행이 신체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이승만이 남베트남 방문을 결정한 것은 그만큼 그가 남베트남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승만은 1955년 10월에 남베트남이 정식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남베트남을 찾은 외국 정상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기 한국의 대외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 대부분은 친미와 반일이라는 거시적인 틀과 한미일 관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sup>2)</sup> 이러한 도식적인 틀만으로는 이 시기 한국의 대외관계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연구사적으로도 비슷한 결의 논지만 재생산될 뿐 사실상 새로운 논의가 펼쳐질 장을 마련하기 어렵다. 실제로 그동안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여타 국가와 이승만 정권의 관계는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다.<sup>3)</sup> 특히 남베트남과는 양국 정상 간에 국가적인 차원의 교류가 있었음에도 그것이 함의하는 바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통적인 냉전사 서술에서는 주로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만이 냉전의 주체로 상정되며, 이들이 각각 자신이 이끄는 진영 내의 하위동맹국인 제3세계 국가들에 개입하는 과정과 그 양상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구도 아래서 제3세계는 흔히 미국과 소련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냉전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주체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부차적인 존재로 그려진다.<sup>4)</sup>

2) 李鍾元, 『東アジア冷戦と韓米日關係』, 東京大學出版會, 1996; 노기영, 『이승만정권의 태평양동맹 정책과 한미일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권운서, 『대한민국 건국 전 후기의 이승만외교의 성격에 관한 연구: 1945~1950년간의 대미외교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윤동현, 『李承晩 外交의 變遷過程과 內容分析: 對美外交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86.

3) 이 시기 한국의 대중동외교를 고찰한 연구로는 박정근의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박정근, 『1957년 한국의 주터키대사관 설치와 對중동외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4) 홍석률, 「냉전의 예외와 규칙 - 냉전사를 통해 본 한국 현대사」, 『역사비평』 110, 2015.

이상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냉전사 서술은 미국의 대(對)동아시아 동맹전략을 이른바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s)’ 구조로 설명한다. 냉전기에 압도적인 헤게모니를 보유한 미국은 중심(Hub)이 되고, 미국의 하위동맹국은 마치 자전거의 바퀴살(Spokes)과 같은 구조로 각각이 중심인 미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냉전의 실상이 항상 그러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며, 제3세계 국가의 지도자들 역시 해당 지역 내에서 자신들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다. 따라서 그들이 각자 속한 진영 내에서 해당 진영을 이끄는 초강대국과 맺은 수직적이고 종적인 관계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역량이 비등한 약소국 간에 맺은 수평적이고 횡적인 관계 또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허브 앤 스포크’ 구조에서 벗어나 제3세계 국가들이 서로 맺은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냉전의 주체로서 제3세계 국가의 동향에 주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베스트(Odd Arne Westad)의 저서 『*The Global Cold War*』가 있다.<sup>5)</sup> 베스트는 기존의 유럽 중심적인 냉전 개념으로부터 탈피해 냉전을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냉전의 또 다른 행위 주체로서의 제3세계에 주목했지만, 주로 미국과 소련이 제3세계의 분쟁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친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sup>6)</sup> 또한 이 연구는 냉전 시기 제3세계를 강조하면서도 그들 간의 관계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김도민이 냉전 시기 남·북한의 제3세계에 대한 진영 외교와 그들 국가 간의 관계를 규명한 바 있다.<sup>7)</sup> 그는 남한과 북한이 각각 ‘중립국’<sup>8)</sup>을 인식

5) Odd A. Westad,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6) 위의 책에서 베스트는 냉전을 단순히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아닌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단어 자체로 물리적인 의미의 전쟁이 없는 갈등상태를 의미하는 ‘냉전’은 오직 유럽의 경험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같은 시기에 직접 전쟁을 수행해야 했던 비유럽 국가들의 경험은 아우르지 못한다. 베스트는 전통적인 의미의 냉전 개념만으로는 다 포괄할 수 없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냉전 개념을 제시하고, 그 필요성을 역설한다.

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과정부터 1965년 베트남전쟁을 기점으로 ‘중립국 외교’가 분기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고찰했다. 김도민의 연구는 남한과 북한을 비롯한 냉전 시기 제3세계 국가들의 움직임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주로 남·북한과 제3세계 국가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한국과 남베트남의 정상외교는 주목받지 못했다.

도미엔은 베트남전쟁 시기를 전후로 남한과 남베트남,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가 각각 변천하게 되는 과정과 그 중요성을 밝혔다.<sup>9)</sup> 도미엔의 연구는 한국과 미국에 남아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기존까지 국내 연구자들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베트남 자료를 망라하여 냉전 시기 한반도와 베트남의 관계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가 크다. 또 도미엔은 이 연구에서 한국과 남베트남 정상의 상호방문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분석의 대상이 된 시기가 주로 1960년대인 까닭에 1950년대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외교는 1960년대 양국 관계의 전사(前事) 정도로 다루어지는 데서 그쳤다.<sup>10)</sup>

사회학계에서는 윤충로가 베트남 자료를 활용해 이승만 정권과 응오딘지엠 정권을 중심으로 한국과 남베트남에서 반공독재국가가 형성되는 과정과 남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인식을 분석했다.<sup>11)</sup> 1950년대 한국과 남베트남의 관계 연구가

- 
- 7) 김도민,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 8) 김도민은 냉전 시기 각각 미국과 소련을 필두로 하는 양극적 냉전질서에 반해 중립주의 및 비동맹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국가들을 일컬어 따옴표를 붙인 ‘중립국’으로 지칭했는데, 이는 제3세력으로서의 ‘중립국’이라는 용어를 그 당시 남한과 북한이 사용하던 용어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김도민, 위의 논문, 4~5쪽.
- 9) 도미엔, 『베트남전쟁기 한반도와 베트남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 10) 도미엔은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다른 내용 중 일부이기도 한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를 베트남전쟁이라는 맥락 아래서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 연구 또한 베트남 자료를 활용해 베트남전쟁기 북한과 북베트남의 제반 상황 및 국제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나, 같은 시기 남한과 남베트남 관계는 다루지 않고 있다. 도미엔, 『붉은 혈맹: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전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 11) 윤충로, 『베트남과 한국의 반공독재국가형성사』, 선인, 2005; 윤충로, 「베트남전쟁 시기 한·미·월 관계에서 한국의 ‘정체성 만들기’」, 『담론 201』 9, 2007; 윤충로, 「20세기 한국의 대 베트남 관계와 인식: 1945년 해방 이후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97, 2013.

전반적으로 부족한 한국 학계의 실황에 비추어볼 때, 윤충로의 연구는 본 논문의 선행연구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연구의 초점이 1950년대 한국과 남베트남에서 반공독재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 맞추어져 있어, 두 나라 간의 관계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은 것이 아쉽다. 이 연구에서도 이승만과 응오딘지엠의 상호방문이 언급되기는 했으나, 방문의 경위와 내용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이승만 정권기에 이루어진 한국과 남베트남 정상외교의 상호방문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냉전기 제3세계 반공 국가 간의 횡적 교류와 그들이 주도했던 움직임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냉전기 미국의 하위동맹국이었던 한국과 남베트남이 진영 내에서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떻게 연대를 구축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 연대의 이면에는 어떠한 균열의 요소들이 또한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본 논문은 냉전의 제3세계성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동시에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미비했던 제3세계 국가 간의 횡적 교류를 입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국, 미국, 베트남에 소재하는 다국적 자료를 상호 교차해 검증하는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우선, 한국 측 자료로는 외교문서 외에도 대통령기록물과 당시의 신문 기사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특히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외교부 외교사료관에서 보존 관리 중인 기록물 가운데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통령의 연설과 담화는 국회도서관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소장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언론의 견해와 여론 등은 주로 신문 자료를 활용하였다.

미국 측 자료로는 국립문서기록관리청(국립문서보관소)에서 소장 중인 국무부의 외교기밀문서<sup>12)</sup>를 활용하였다. 이승만이 자신의 집권기 내내 아시아 지역 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분투했던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와 입장은 주로

---

12) 이 문건의 정식 명칭은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며, 본 논문에서 해당 자료를 인용할 때는 약칭인 FRUS로 통일하였다.

미국의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핵심 사료가 되는 남베트남 정부 관련 자료는 주로 베트남 국립자료센터 소장 문서를 활용하였다. 베트남에서는 현재 총 네 곳의 국립자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제1 자료센터는 베트남 봉건시대부터 식민지 시기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제2 자료센터는 베트남 봉건시대부터 식민지 시기, 베트남공화국 시기, 현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시기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제3 자료센터는 식민지 시기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자료를, 끝으로 제4 자료센터는 봉건시대부터 식민지 시기의 자료와 현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sup>13)</sup>

이 가운데 본 논문에서 활용할 남베트남 관련 정부 자료는 대부분 호찌민시 소재의 제2 국립자료센터에 소장되어 있다.<sup>14)</sup> 이곳에서 소장 중인 자료는 현재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공개되어 있다. 이하 본문에서 활용한 남베트남 자료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2 국립자료센터로부터 인계받은 문서의 사본을 출처로 한다.

---

13) 도미엔, 「베트남 소재 남·북한 관련 자료: 베트남전쟁기(1954-1975)를 중심으로」, 『군사』 96, 2015, 326~327쪽.

14) 총 네 곳의 국립자료센터 가운데 제2 자료센터는 현재 제3 자료센터와 함께 베트남에서 가장 큰 자료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남베트남 정부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 한국과 남베트남 정부의 교류를 살펴보는 데 있어 조사가 필수적인 곳이다. 도미엔, 위의 논문, 332~333쪽.

## I. 이승만 정부의 반공 동맹외교와 남베트남과의 수교

이승만 정부는 1948년 정부 수립 초기부터 강력한 반공주의를 표방했다.<sup>15)</sup> 이 시기에 한국 정부의 정치노선은 국내 좌익 세력은 물론이고, 국제 공산진영 세력과는 어떠한 종류의 타협이나 공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근간으로 했다.<sup>16)</sup> 이승만은 아시아에서 반공 연대를 구축하고, 아시아 각지에서 발생한 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고자 하는 등 아시아에서 반공 질서가 확립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조장했다.<sup>17)</sup>

1949년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이하 '나토') 조약안의 내용이 발표되었다. 나토는 회원국 개별 국가에 대한 공격을 나토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외부로부터 공격받은 국가를 나머지 회원국이 원조한다는 원칙을 골자로 하는 군사동맹이었다. 아시아 반공 국가의 정상들 또한 나토가 규정하고 있는 상호 안전보장의 내용에 주목했다.<sup>18)</sup>

나토의 결성이 발표되자, 1949년 3월 20일 필리핀의 키리노가 가장 먼저 태

---

15) 이승만 정부가 강력한 반공주의를 표방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로는 1952년의 제 2대 대통령 취임사가 있다. 이날 이승만은 “공산제국주의는 모든 연합국을 대립해서 전 세계의 민족주의를 타도시킬 목적으로 할 것이니,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전은 모든 나라들의 승전입니다.”라며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의 위협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적대감을 피력하였다. 「대서양동맹에 기대함」 1952년 8월 15일,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공보처, 1953, 99~102쪽.

16)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1948~1950 민주주의·민족주의 그리고 반공주의』, 역사비평사, 2008; 이관후, 『국가형성기의 한국 민족주의: 한국 전쟁과 통치 이념의 변화 - 일민주의에서 반공주의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홍석률,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과 냉전외교정책」, 『한국사연구』 85, 1994.

17) 이승만은 1954년 2월 초 처음으로 라오스에 한국군 1개 사단을 파병할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 비록 이를 뒷받침할 국제법 및 국내법적 근거의 불충분으로 인해 일방적인 선언 수준에서 그치긴 하였으나, 이 제안은 당시 이승만 정부가 펼친 냉전 외교정책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송재경, 「이승만 박정희 정부의 한국군 파병 추진과 국회의 대응 - 의용군 파병논의를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 116, 2020.

18) 박진희, 앞의 논문, 96쪽.

평양동맹의 창설을 주창하고 나섰다. 그는 아시아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적 성격의 반공 동맹이 필요함을 역설했다.<sup>19)</sup> 3월 23일에는 이승만이 자신은 키리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sup>20)</sup> 장제스 또한 그 무렵 중국 공산화 문제에 당면해 있었으므로 키리노, 이승만과 뜻을 함께했다.<sup>21)</sup>

그러나 곧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한 데다, 미국은 이승만과 장제스가 공산주의 진영에 일대 반격전을 감행할 것을 우려하여 태평양동맹의 창설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태평양동맹 창설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일단락되었다. 이승만은 한국전쟁이 마무리된 이후 반공통일전선에 대한 구상을 재개했으며, 이를 목적으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등 다시 활동에 착수했다.

이승만의 대만 방문이 성사된 것도 바로 이 무렵의 일이었다. 이승만은 한국전쟁 휴정 협정이 체결된 해인 1953년 11월 직접 대만을 방문했다. 그는 대만에서 장제스와 만나 회담하고, 한국과 대만이 아시아에서의 반공 투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sup>22)</sup>

그러나 미국은 이미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계기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을 구체화했으며, 이승만과 장제스의 구상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미국은 또한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성격의 집단안보체제가 결성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키리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비군사적 성격의 지역연합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sup>23)</sup> 키리노는 결국 미국에 설복되었고, 급기

---

19) 키리노는 미국이 아시아 지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유럽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기보다는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319, The Chargé in the Philippines (Lockett) to the Secretary of State”, March 21, 1949, *FRUS 1949*, Volume VII, 1123~1125쪽.

20) 「대서양동맹에 기대함」 1949년 3월 23일, 공보처, 앞의 답화집, 143~144쪽.

21) 1949년 7월 10일 장제스는 필리핀 바기오에서 키리노와 만나 태평양동맹에 대해 논의했다. 이승만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답화문을 발표했다. 「바기오 회담에 대하여」 1949년 7월 12일, 공보처, 앞의 답화집, 144쪽.

22)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중화민국 총통 장개석 공동성명」 1953년 11월 28일, 공보처, 앞의 답화집, 136~137쪽.

23) “#338, Memorandum by the Policy Information Officer of the Office of Far Eastern Affairs (Fisher) to the Director of the Office (Butterworth)”, July 15, 1949, *FRUS 1949*, Volume VII, 1160~1164쪽.

야 자신이 제안하는 태평양동맹은 군사적 성격을 띠지 않는 것이라며 입장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sup>24)</sup>

그러자 이승만은 만일 태평양동맹이 자신의 기대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한국이 필리핀을 대신해 앞장설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sup>25)</sup> 또한 장면 대사에게는 한 달 안에 필리핀 정부가 예비회담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을 방문해 한국의 제안에 따라 회의에 응할 것인지 그 의사를 타진하도록 지시했다.<sup>26)</sup> 이승만의 태평양동맹 구상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을 모두 참여국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승만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입장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당시 아이젠하워 정부는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대외원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아시아 전략의 전면적인 재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sup>27)</sup> 그러나 미국의 대아시아 구상은 어디까지나 일본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승만의 구상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태평양동맹이 미국의 반대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하자, 이승만은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아시아 반공 국가 간의 연대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해당 국가들의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1953년부터 195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동남아친선사절단'이 파견되었다. 이승만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관심을 돌린 이유는 당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의 이목이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53년 12월 7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제1차 사절단이 대만, 남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지에 파견되었다. 제1차 사절단은 백낙준을 필두로, 이범영,

---

24) 1949년 8월 키리노는 미국 상원에서 “동맹의 관계 각국이 동맹에 부합하는 육해공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며 “비군사적 성격의 태평양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요청”한다는 뜻을 밝혔다. 「“태맹” 지지를 요청, 비(比) 대통령 미 상원서 연설」, 『경향신문』 1949년 8월 11일.

25) 「대통령과 일문일답」, 『경향신문』 1949년 9월 10일.

26) 장면, 『한알의 밀이 죽지 않고는: 장면 박사 회고록』, 가톨릭출판사, 1999, 101쪽.

27) Michael J. Hogan, *A Cross of Iron: Harry S. Truman and the Origins of the National Security State, 1945-1954*,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329~330.

최덕신, 황규면의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파견 목적은 당시의 현안이던 태평양 방위공동체 구성의 촉진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sup>28)</sup> 제1차 사절단의 파견을 통해 동남아시아민족반공대회의 개최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자, 이승만은 본격적으로 비정부기구로서의 반공통일전선 구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54년 2월 10일에는 역시 약 한 달의 일정으로 제2차 사절단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베트남 등지에 보내졌다. 제2차 사절단은 이범영, 최덕신, 김병훈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제2차 사절단이 남베트남을 방문한 목적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프랑스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군을 파병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뜻을 반공 정권인 남베트남 정부에 알리기 위함이었다.<sup>29)</sup> 제2차 사절단의 파견 성과로 이승만 정부는 4월 중 서울에서 동남아시아민족반공대회를 개최하는 데 아시아 국가 간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sup>30)</sup>

그러나 동남아시아민족반공대회 개최 준비가 한창이던 1954년 4월 초, 미국은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연결하는 동남아시아조약기구(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SEATO)의 결성을 발표했다.<sup>31)</sup> 이 기구는 미국 주도의 반공 집단안보체제였음에도 한국과 대만은 조약구역에서 제외되었다.<sup>32)</sup> 그러자 한국이 주도하는 반공대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국가들의 관심도 자연히 미국이 주도하는 SEATO로 향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동남아시아민족반공대회의 개최 또한 자연히 연기되었다.

이승만이 SEATO와는 별개로 반공대회를 개최하고자 다시 사절단을 파견한 것은 1954년 4월 말이 되어서였다. 이범영과 최덕신으로 구성된 제3차 사절단

28) 「동남아 사절 출발」, 『경향신문』 1953년 12월 8일.

29) 장세진, 『슬픈 아시아: 한국 지식인들의 아시아 기행(1945~1966)』, 푸른역사, 2012, 146~150쪽.

30) 「아세아 반공 회의, 내월 서울에서 개최」, 『동아일보』 1954년 3월 17일.

31) 이와 별개로 한국과 대만,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조약기구가 한때 논의되기도 했으나 한국과 일본의 호응을 얻지 못하며 흐지부지되었다. 박진희, 「한, 일 양국의 한일협정 반대운동 논리」, 『기억과 전망』 16, 2007, 326~328쪽.

32) “#665, Memorandum by Charles C. Stelle to the Director of the Policy Planning Staff (Bowie)”, March 31, 1954, *FRUS 1952-1954*, Volume XIII, 1195~1198쪽.

이 한 달여 간의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파견되었고, 이를 통해 6월 중 진해에서 동남아시아민족반공대회를 개최하는 데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sup>33)</sup> 이승만은 곧 대회의 이름을 아시아민족반공대회로 개칭했다. 1954년 6월 15일 마침내 한국을 비롯해 대만, 태국, 필리핀, 남베트남, 홍콩·마카오, 오키나와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해에서 제1차 아시아민족반공대회가 개최되었다.<sup>34)</sup> 이 대회는 명목상으로는 민간인 조직체였지만 사실상 한국 정부가 주축이 되어 후원하는 관제 조직이었으며, 중앙연락 사무소도 서울에 두고 있었다.<sup>35)</sup>

대회에 참가한 각 국가 대표들은 결의문과 조직원칙을 통해 아시아에서 반공(反共)과 반제(反帝)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들은 또한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아시아를 지키기 위해 원조와 협조를 제공한 미국과 대회가 성사되기까지 크게 이바지한 이승만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sup>36)</sup>

흥미로운 점은, 대회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이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기를 희망하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정부들이 서방 열강 특히 미국과의 긴밀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나, 이는 항상 자유 아시아의 능력과 관심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할 것”이라며 제3세계 국가로서 자신들의 능동적인 역할도 함께 강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sup>37)</sup> 이는 이 대회를 실질적으로

33) 「내(來) 15일 반공대회」, 『경향신문』 1954년 5월 28일; “Telegram from Embassy in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June 02, 1954, 2828A, Classified General Records, RG 84.

34) 「반공 아시아 민족대회와 집단방위」, 『경향신문』 1954년 6월 15일.

35) 홍석률, 앞의 논문(1994), 170~171쪽.

36) 제1차 아시아민족반공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진해에서 개최된 본 대회에 참가한 각국 아시아민족조직의 대표자인 우리는 우리의 각 국가에서 모든 수준과 모든 방법으로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한 우리의 확고한 결의를 선언한다. 2. 미국은 자유 아시아 국가와 기타 모든 국가에 대하여 공산 침략으로부터 자유를 보존하도록 위대한 원조와 협조를 보여 왔음에 대하여 진해에서 열린 아시아민족반공대회는 자유 아시아인과 모든 자유 민족에게 부여한 우의와 원조에 대하여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통하여 미국과 미국 국민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3. 이승만 대통령의 영도 하에 한국이 아시아의 자유 민족을 단결과 친선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결함시킵에 있어서 이니시야탐을 취하였으며 이 대통령과 대한민국 관리, 특히 한국대표단과 한국 국민이 아시아민족반공대회를 성공하게 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이 대통령과 기타관계 관리 및 한국 국민이 자유의 이 도구를 활용함에 있어서 귀중한 시간과 능력을 바쳐 준 것을 감사히 여긴다. 「대공 강력투쟁 발표된 결의문」, 『경향신문』 1954년 6월 19일.

37) 「진해 회의 성공리에 폐막, 아주민족반공동맹을 창설」, 『조선일보』 1954년 6월 19일.

주도한 인물이자, 제3세계 국가 간의 횡적인 교류 속에서도 나름대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이승만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1〉은 제1차 아시아민족반공대회에 참가한 각 지역 대표의 구성을 보여준다. 한국과 대만의 대표가 각각 6명씩으로 가장 많았고, 남베트남의 대표가 5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실상 처음부터 이 대회를 구상했던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다면, 단일 참가국으로서는 남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것이다. 필리핀은 가장 먼저 태평양동맹을 주창했던 국가였음에도 3명의 대표만을 참가시켰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이는 더더욱 주목할 만한 지점이 아닐 수 없다.

〈표 1〉 제1차 아시아민족반공대회 소속별 대표 구성

소 속	인 원	직 업
한 국	6명	정치(3), 사법(1), 교육(2)
대 만	6명	정치(1), 사법(2), 교육(1), 언론(1), 미상(1)
남베트남	5명	정치(2), 미상(3)
홍콩·마카오	4명	상업(3), 교육(1)
필 리 핀	3명	교육(1), 언론(1), 종교(1)
태 국	1명	미상(1)
오키나와	1명	미상(1)

이승만과 장제스는 어렵사리 성사된 아시아민족반공대회가 애초에 의도했던 비정부기구의 수준을 넘어서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한국에 대한 ‘동병상련의 정’을 강조하며 대회에 참가한 남베트남 역시 향후 대회가 더욱 큰 규모로 발전하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베트남이 한국이나 대만과 마찬가지로 대표단 구성에 정치인을 포함한 것은 이러한 맥락 아래서 이해될 수 있다.<sup>38)</sup>

더구나 당시는 아직 한국과 남베트남 간에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지도 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된 제1차 아시아민족반공대회는 이승만 정부가

38) 제1차 아시아민족반공대회에 참가한 남베트남 대표단에는 응우옌반땀 전 수상과 부흥카인 전 정 부청년부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회 일정과 대표 명단」, 『동아일보』 1954년 6월 15일.

처음으로 남베트남과 직접적인 교류를 맺은 장이었다. 이를 계기로 이승만 정부는 본격적으로 남베트남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으며, 양국은 서로가 처해 있는 유사한 상황을 바탕으로 모종의 유대감을 형성해나갔다.

남베트남이 공식적으로 수립된 것은 그 이후였다. 응오딘지엠은 1955년 10월 23일 치러진 국민투표를 근거로 집권했고, 10월 26일에는 베트남공화국(남베트남)의 수립을 공표했다. 한국은 10월 27일 프랑스와 미국, 영국의 뒤를 이어 남베트남과 응오딘지엠 정부의 출범을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sup>39)</sup> 이 시기부터 이승만은 아시아의 새로운 반공 국가인 남베트남과 긴밀하고 우호적인 연대를 이룩하고자 한다는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혔다.<sup>40)</sup>

남베트남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는 초대 남베트남 주재 한국공사로 임명된 최덕신에게서도 잘 드러난다. 최덕신은 신임장을 받은 뒤 한국과 남베트남이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존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역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 목표를 위해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정치, 군사, 도덕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sup>41)</sup>

남베트남이 정식으로 출범하자 한국 정부는 한국, 대만, 남베트남을 연결하는 군사동맹에 대한 남베트남 측의 의사를 타진하고자 했다. 1955년 8월 최덕신은 제2차 아시아민족반공대회 개최를 앞두고 동남아시아 반공 국가를 순방했는데, ‘한중월 군사동맹’은 이때 처음 구상되었다. 이는 동아시아 주요 반공 국가를 연결하는 것으로써 이승만과 장제스가 오랫동안 구상해온 태평양동맹의 다른 형태였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한중월 군사동맹’에서는 이미 그들과 노선을 달리

39)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1948-1978』, 1979, 27쪽.

40) 이승만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응오딘지엠에게 다음과 같은 축전을 보냈다. “나는 각하가 귀 국민의 압도적인 민의에 따라 월남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제하여 각하의 건강과 신생 귀 공화국의 번영을 위하여 성심으로 축의를 표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혼쾌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나는 우리 양국 사이에 긴밀하고 우호적인 유대가 이룩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월남공화국 정부를 승인』, 『조선일보』 1955년 10월 28일.

41) “The remarks to be made by Lieutenant General Duk Shin Choi, The newly appointed Minister to Vietnam on the occasion of the presentation of his Letter of Credence”, 1956, 외무부 외교문서 분류번호 711.1, 등록번호 20 ‘대사파견-월남’, 롤 B-0001, 프레임 1749~1750.

한 필리핀 대신 남베트남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가 한중월 삼국 간의 군사동맹을 남베트남 측에 정식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었다.<sup>42)</sup> 그러나 일찍이 조정환 외무부장관 서리는 최덕신이 이승만의 특사로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며 군사동맹을 제안한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인정했다.<sup>43)</sup> 이는 ‘한중월 군사동맹’이 단순히 최덕신 개인의 구상이라기보다는 한국 정부 측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상통하는 것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삼국 간 군사동맹안은 동맹의 대상으로 고려되었던 남베트남 측이 여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은 까닭에 결국 구상 단계 이상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정리하자면, 이승만은 집권 초기부터 키리노, 장제스와 함께 아시아에서 반공 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때 태평양동맹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는 듯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을 제외한 집단안보체제를 결성하는 데 반대하고, 필리핀 또한 미국에 회유되어 중도 이탈하자 이승만 정부의 움직임도 난관에 봉착했다. 그러자 이승만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관심을 돌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반공 연대를 구축하고자 했으며,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 한국군을 파병하고자 하는 등 국제적으로 반공 질서가 확립되는 데 앞장섰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이미 자신과 노선을 달리한 필리핀을 대신해 남베트남이 포함되는 군사동맹을 구상하기도 했다.

이승만 정권기에 한국은 철저하게 냉전적 사고에 기반한 외교를 전개했다. 이승만 정부는 자유주의 진영 내의 외교에 열중했으며, 그 가운데서도 강력한 반공주의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와의 연대를 특히 중요시했다. 이는 필리핀이 한

42) 1956년 9월 최덕신 주한 남베트남공사는 기자회견에서 삼국(한국, 대만, 베트남) 간 군사동맹과 관련된 내용이 남베트남에 “정식으로 제기된 바 없다”고 밝혔다. 「월남과 불원(不遠) 교역, 최 공사 기자회견서 연명」, 『경향신문』 1956년 9월 23일.

43) 조정환 외무부장관 서리는 1955년 8월 31일 “동남아시아에서의 반공 유대의 강화를 위한 첫 단계로 한국, 남베트남, 대만을 연결하는 군사동맹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시 동남아시아 각국을 역방 중이던 최덕신이 한중월 간의 군사동맹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언명하였다는 외신보도를 시인했다. 「한월중의 군맹, 최 장관 추진 연명」, 『동아일보』 1955년 8월 31일; 「한·중·월 군맹을 추진」, 『조선일보』 1955년 9월 1일.

국과 대만이 주장하는 군사동맹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자, 이승만이 필리핀 대신 신생국가인 남베트남과의 연대를 도모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이승만 정부는 초반부터 한국과 남베트남이 유사한 상황에 당면해 있음을 강조하며 남베트남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강경한 반공주의를 표방할 것을 기대했다.

이승만 정부는 남베트남의 출범을 한국과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신생 반공 국가의 등장으로 이해하고 환영했다. 남베트남 또한 한국과 정식으로 수교하기 이전부터 한국이 주도하는 반공대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으로써 반공 국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한국과 남베트남의 관계는 반공주의라는 공통된 이념을 매개로 시작되었고, 이후 양국 정상은 서로의 국가를 방문하며 양국 간의 결속을 더 견고히 다지고자 했다.

## II. 한국·남베트남 정상의 상호 방문 외교

### 1. 1957년 응오딘지엠의 한국 방문

1957년 4월 5일, 미국 백악관은 내달 중 응오딘지엠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는 내용을 발표하였다.<sup>44)</sup> 이승만은 이 소식을 접한 뒤에 최덕신 공사를 통해 자신은 응오딘지엠이 미국에 다녀오는 길에 한국에도 들려주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응오딘지엠은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한 우방이요, 이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이므로 타국에 내왕 중에 들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며, “차후 전적 귀국(한국)만을 방문”하고자 한다는 말로 이승만의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했다.<sup>45)</sup>

최덕신은 응오딘지엠에게 향후 아시아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을 먼저 방문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승만의 제안에 대한 응오딘지엠의 답변과 자신이 그에게 따로 요청한 내용을 본국에 자세히 보고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응오딘지엠의 인도 방문설이 나오자 이승만은 즉각 불만을 표했다. 남베트남 측에서는 일전에 자와할랄 네루 인도 수상이 먼저 남베트남을 찾았던 것에 답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승만과 최덕신은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네루의 남베트남 방문은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도중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그때 네루는 북베트남에도 방문했으므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sup>46)</sup>

남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한국 측의 항의를 받아들여 인도 방문에 앞서 한국을

44) 「내월에 방미, 고 월남대통령」, 『조선일보』 1957년 4월 7일.

45) 최덕신, 「越南과 나」, 『外交春秋』, 外交同友會出版局, 1971, 132쪽.

46) 최덕신, 위의 글, 132쪽.

먼저 방문하는 것으로 기존의 계획을 변경하였다. 응오딘지엠의 인도 방문은 한국 방문 이후로 일정이 재조정되었다.<sup>47)</sup> 마침내 1957년 9월 18일, 이승만의 초청에 응한 응오딘지엠이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이승만이 처음 초청 의사를 밝힌 뒤로 약 5개월 만에 성사된 남베트남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었다. 이승만은 직접 공항까지 나가서 응오딘지엠을 맞이하고, 다음과 같은 환영사를 발표했다.

오늘날 각하와 귀 국민은 새로운 결의로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각하! 우리도 귀 국민과 더불어 멸공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우리는 각하의 내한이 공산주의와 식민주의 및 기타 여하한 형태의 침략이라도 분쇄키 위한 단결된 아세아의 공동투쟁에 새로운 기원이 되기를 바랍니다.<sup>48)</sup>

이승만은 위 환영사에서 응오딘지엠의 방한이 아시아 공동투쟁의 새로운 기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한국과 남베트남이 공동으로 맞서 투쟁해야 할 대상으로 공산주의와 식민주의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승만에게 있어 식민주의는 곧 소련을 적색 제국주의 침략자로, 자유진영 국가는 소련을 위시하는 적색 제국주의의 침략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었다.<sup>49)</sup> 따라서 이승만이 언급한 식민주의는 당시 제3세계 국가들이 주창하던 통상적인 의미의 반제 및 반식민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이승만은 또한 당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응오딘)지엠 대통령의 투철한 반공정신에 거족적인 경의를 표하며, 그의 공적은 만인이 양모(仰慕)할 바”라며 그

---

47) 응오딘지엠은 1958년 11월 4일에 인도를 방문하고, 네루 수상을 만나 회담했다. 이는 9월 말에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부터 약 한 달 후의 시점이었다. 「월남·인도 정상회담 개시」, 『경향신문』 1957년 11월 6일.

48) 「고 월남대통령 내한에 환영사」 1957년 9월 18일,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제3집』, 공보실, 1959, 99쪽.

49) 홍석률, 「한국전쟁기 중국군에 대한 이승만의 인식과 대응」, 『역사비평』 140, 2022, 236쪽.

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승만은 이러한 언사를 통해 한국과 남베트남의 연대에 내포된 반공주의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부각하고자 했다.

[그림 1] 응오딘지엠의 내한을 환영하는 이승만 (출처: 국가기록원)



장면 부통령과 이기붕 국회의장 또한 남베트남 대통령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이승만과 마찬가지로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면은 응오딘지엠을 “월남의 자유 독립을 위한 혁명투사이자 열렬한 반공투사”라고 치켜세우며, 한국과 남베트남이 “더욱 긴밀한 유대 아래 반공 아세아의 선두에서 공진 분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양국의 관계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드러냈다.

이기붕은 한국과 남베트남이 당면해 있는 공동운명과 그에 맞서는 합심 단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를 방문한 응오딘지엠을 맞이하며 다음의 환영사를 발표했다.

우리의 간절한 희망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각하의 우리나라 방문은 소위 중립국 국민들의 자살적인 공존 환상을 깨우쳐주고 악독한 공산 제국주의에 대한 그들의 경계심을 일으켜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위한 투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우리의 공동노력에 있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sup>50)</sup> (밑줄 인용자)

주목할 만한 점은, 장면과 이기붕 모두 반공주의를 이야기했으나 그 안에서 강조한 내용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두 사람 모두 한국과 남베트남이 반공주의라는 이념 아래 힘을 합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장면이 단순히 양국 간 반공 연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정도에서 그친 것과 달리, 이기붕은 중립주의를 “자살적 공존 환상”이라고 일컬으며 한층 더 강경한 논조로 반공주의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곧 반공의 내용이나 정도에 대해 당시 한국 정부 지도자들 사이에도 견해차가 있었음을 방증한다.

응오딘지엠은 이에 대한 답례 연설에서 한국을 “아세아의 형제국의 경우와 같이 직면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수범이 될 선례”라고 평가했다.<sup>51)</sup> 한국과 남베트남이 유사한 상황에 당면해 있음을 ‘형제’에 비유한 동시에 한국을 아시아에서 반공을 선도하는 국가로 치켜세운 것이다. 응오딘지엠의 연설에서 한국은 남베트남의 형제국가로, 그중에서도 ‘수범이 되는’ 형과 같은 국가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묘사는 이후 전개될 양국의 관계에서 한국이 남베트남을 바라보는 인식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특히 응오딘지엠의 국회 연설은 방한이 준비되는 과정에서부터 그 자신이 먼저 한국 국회에서 연설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52)</sup> 그는 자신의 사전 요청에 따라 마련된 자리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50) 「공동투쟁의 신(新) 전기, 월남 대통령 맞아 이 의장 환영사」, 『경향신문』 1957년 9월 20일.

51) 「“한국은 반공의 선구”」, 『동아일보』 1957년 9월 20일.

52) “SP Report No.054-A from Minister to Vietnam to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September 4, 1957, 외무부 외교문서 분류번호 724.12, 등록번호 114 ‘Ngo Dinh Diem(고딘디엠) 월남 대통령 방한, 1957.9.18.-22’, 롤 C-0002, 프레임 0218.

한국과 남베트남의 상황을 강조하고, 나아가 한국의 경험이 남베트남에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몇몇 중요한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아시아의 모든 민족은 근본적으로 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일부가 경험한 바는 다른 이들에게도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베트남 국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상황과 가장 가까운 한국 국민들의 용기 있는 노력을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sup>53)</sup> (밑줄 인용자)

응오딘지엠은 국회 연설에서 자신의 방한 목적과 의의를 아시아 반공 연대 구축과 연결 지어 밝혔다. 그러나 이날 응오딘지엠의 연설에서는 한국과 남베트남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반공주의가 강조되었을 뿐이었다. 그는 앞서 이기붕이 비판한 중립주의나 한국 측이 구상했던 ‘한중월 군사동맹’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응오딘지엠이 한국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이미 국회에서 할 연설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의 연설에서 중립주의나 군사동맹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도 그 자신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응오딘지엠은 한국과 반공 연대를 강화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국 정부의 극단적인 반공주의 노선에 동조할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응오딘지엠은 남베트남이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교훈 삼고자 하는 분야를 군사 분야로만 한정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오딘지엠의 방한은 전체적으로 반공주의적이고 군사주의

---

53) 이날 국회를 방문한 응오딘지엠은 영어로 연설했는데, 해당 연설문의 한국어 번역 전 내용은 베트남 정부 문서를 참고하였다. “President Ngo Dinh Diem’s Address Before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September 19, 1957, Hồ sơ 18316, Phủ Tổng thống Đế nhất Cộng hòa,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표 2>는 응오딘지엠이 한국 방문 중에 소화한 주요일정이다. 그는 방한 2일 차에 국군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육군사관학교를 시찰했다. 3일 차에는 한국군 보병 제6군단을 방문해 제8사단의 합동 시범훈련을 참관하고, 휴전선 일대를 시찰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한국 정부 최고위급 인사와의 회동을 제외하면, 사실상 응오딘지엠이 소화한 대부분의 일정이 반공주의와 밀접한 군사 분야에 편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응오딘지엠 방한 주요일정(1957.09.18.~22.)

일 자	시 간	내 용
9/18 (수)	오후 04:30	서울 도착
9/19 (목)	오전 09:30	이승만 대통령과 회담
	오전 11:30	국회 참관
	오후 02:30	국군묘지 참배
	오후 03:30	육군사관학교 시찰
9/20 (금)	오전 09:30	보병 군단 방문
	오전 11:00	합동 시범훈련 참관
	오후 12:30	보병 중대 사열 및 장비 시찰
	오후 02:00	휴전선 일대 시찰
9/21 (토)	오후 12:00	기자회견
	오후 06:00	공동성명 발표
9/22 (일)	오전 09:30	서울 출발

당시 응오딘지엠의 관심이 오로지 군사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자신의 방한에 앞서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군사, 산업, 문화 분야에 특히 관심을 보이며, 최덕신 공사에게 자신이 한국에서 소화할 일정에 이 주제들이 반영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sup>54)</sup>

응오딘지엠의 수행원 구성 또한 그가 군사 분야 외에도 한국 사회 여러 분야

54) "SP Report No.054-A from Minister to Vietnam to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September 4, 1957, 외무부 외교문서 분류번호 724.12, 등록번호 114 'Ngo Dinh Diem(고딘디엠) 월남 대통령 방한, 1957.9.18.-22', 롤 C-0002, 프레임 0219.

에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그는 명단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최덕신을 통해 자신의 수행원에 군사, 경제, 산업, 재정, 그리고 문화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알려진 바 있다.<sup>55)</sup> <표 3>은 응오딘지엠의 수행원 명단이다. 이 중에는 군인 출신 인사 외에도 공업기획위원, 유교연구원장, 국립은행원장 등 각 분야의 대표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sup>56)</sup>

<표 3> 응오딘지엠 방한 당시 수행원 명단

응오딘지엠 수행원 명단 (22名)			
부반머우 외무장관	쩐반민 수석보좌관	레반러이 외무부	후인반까오 비서실
레반띠 참모총장	응우옌반이 차석보좌관	응우옌짱 국회의원	브우하오 공업기획위원
응우옌찌아인 주한 대리공사	보반하이 비서실장	응우옌후이뉴 유교연구원장	부이팻르영 공업기획위원
응우옌딘투언 국방장관	부반타이 외원 관리처장	보귀히 민사 판무관실	팜꽁팜 국립은행원
끼에우꽂공 민사 판무관	똌똌티엔 공보비서	응우옌반라 제1관구사령관	
레반호아 의전국장	응우옌흐우찌 외무부	똌똌티엣 비서실	

그러나 1957년 응오딘지엠의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과 남베트남 간에 경제, 산업, 재정,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응오딘지엠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염두에 두었던 내용과 실제 그의 방한 내용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55) "SP Report No.054-A from Minister to Vietnam to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September 4, 1957, 외무부 외교문서 분류번호 724.12, 등록번호 114 'Ngo Dinh Diem(고딘디엠) 월남 대통령 방한, 1957.9.18.-22', 롤 C-0002, 프레임 0218.

56) "State Visit to Korea of His Excellency Ngo Dinh Diem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Vietnam President's Party", 1957, 외무부 외교문서 분류번호 724.12, 등록번호 114 'Ngo Dinh Diem(고딘디엠) 월남 대통령 방한, 1957.9.18.-22.', 롤 C0002, 프레임 0234-0235.

이러한 괴리는 무엇보다도 초청국인 한국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방문일정은 방문 국가의 정부 측과 협상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응오딘지엠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면을 살펴보고자 한 의도가 대부분 희석된 것이다. 당시 한국이 남베트남과의 관계에서 반공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인 측면에만 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은 응오딘지엠을 맞이하는 한국 정부 인사들의 연설에서도 잘 드러난 바 있다.

일례로, 응오딘지엠이 자신의 수행원 구성에 유교연구원장을 포함했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가 일찍부터 자신이 한국의 문화에도 관심이 있음을 밝혔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수행원에 유교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것은 한국과 남베트남이 모두 유교문화를 공유하는 국가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응오딘지엠을 따라 방한한 유교연구원장이 한국의 유학자를 만나거나 성균관을 방문하는 등 문화 교류와 관련된 일정을 소화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응오딘지엠 역시 당시 한국과 남베트남이 당면해 있던 유사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군사 분야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가 앞서 최덕신과 방한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보였던 분야들 가운데도 군사 분야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응오딘지엠의 방한 목적에서 한국의 군사 분야 시찰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은 이후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가 남긴 발언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9월 21일 정오에 응오딘지엠은 출국을 하루 앞두고 반도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기에 앞서 자신의 한국 방문을 짧게 요약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는데, 이때 그가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일정은 다름 아닌 육군사관학교와 휴전선 시찰이었다. 그는 시찰 당시 자신이 직접 목도하고 온 사관생도와 한국 군인들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며, 그러한 병사들로 이루어진 한국군의 역량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sup>57)</sup>

이날 기자회견에서 응오딘지엠은 한국과 대만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군사동맹에 관한 견해를 질문을 받기도 했다. 이는 ‘한중월 군사동맹’이 비록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된 적은 없으나, 대통령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거론될 정도로 이미 양국 간의 현안이 되어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응오딘지엠은 제네바 회담의 조항<sup>58)</sup>을 근거로 들며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sup>59)</sup> 그는 다만 남베트남 역시 아시아의 공동이상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날인 9월 21일 저녁에 응오딘지엠은 이승만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목소리로 공산주의 세력의 활동이 한국과 남베트남의 국토 통일에 방해될 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전에도 지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성명의 취지는 양국은 공산주의 세력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쟁하겠다는 공통된 결의를 재확인하는 데 있었다.<sup>60)</sup> 그러나 이 성명에서도 군사동맹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내 언론 또한 응오딘지엠의 방한이 “아시아의 반공 전선이란 것이 남쪽에서는 베트남, 북쪽에서는 우리 한국, 이 두 나라 국민의 처참한 저항으로써 오늘 의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며 반공이라는 특정한 맥락을 강조하고 나섰다.<sup>61)</sup> 그렇지 않아도 군사적인 성격이 짙었던 응오딘지엠

---

57) “제가 육군사관학교와 전선에서 본 사관생도와 군인들의 무술 자세, 화려한 퍼포먼스, 목적에 대한 결단력과 결연함은 저로 하여 한국군이 공산주의와 제국주의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아시아 및 세계 문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영어 원문 번역)”, ‘Statement by President Ngo Dinh Diem at his Press Conference at Bando Hotel’, September 21, 1957, Hồ sơ 18316, 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Cộng hòa,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58) 1954년 7월 20일 발표된 ‘베트남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in Viet-Nam)’ 제19조는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각각 자신들에게 할당된 지역이 어떠한 군사동맹도 따르지 않을 명시했으며, 7월 21일 발표된 ‘인도차이나 평화 회복 문제에 관한 최종 선언(Final Declaration of the Geneva Conference on the Problem of Restoring Peace in Indo-China)’ 제5조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가 외국과의 군사동맹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명시했다. Alan Watt, “The Geneva Agreements 1954 in Relation to Vietnam”, *The Australian Quarterly* 39(2), 1967, p.12.

59) 「한·월·중 군맹은 불원」, 『동아일보』 1957년 9월 22일.

60) 「한·월 양 원수 공동성명」, 『경향신문』 1957년 9월 22일.

61) 「고 대통령을 환송하며」, 『조선일보』 1957년 9월 23일.

의 방한이 언론에 의해 다시 한번 반공주의적으로 재생산된 셈이었다.

실제로 응오딘지엠은 9월 22일 오전 6시경 장면 부통령과 명동성당에서 열린 일요 미사에 참례하기도 했다. 이 일정은 본래 계획되었던 그의 방한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sup>62)</sup> 계획상에는 없던 일정이 언제, 어떤 이유로 추가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면과 응오딘지엠이 1950년 개최된 제5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이미 안면을 익힌 사이였음을 고려할 때, 미사 참례 일정은 당사자인 장면 또는 응오딘지엠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sup>63)</sup>

가톨릭 신자였던 응오딘지엠은 출국 당일 오전에 장면을 미리 만나 30분간 환담한 뒤 그와 함께 미사에 참례했다. 당시 장면은 부통령직을 맡고 있었음에도 이승만 정부로부터 공공연히 소외되고 있었다.<sup>64)</sup> 심지어 그는 응오딘지엠의 방한 중에도 이승만 정부가 주최한 행사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sup>65)</sup> 이러한 상황에서 장면과 응오딘지엠은 응오딘지엠의 방한 일정이 종료되기 직전이 되어서야 겨우 서로를 만나볼 수 있었다.

응오딘지엠의 미사 참례는 그가 한국에서 소화한 일정 가운데 군사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 몇 안 되는 일정 중 하나였으므로 가히 주목할 만한 사안이었다. 더욱이 그와 미사에 동행한 인물이 장면이었다는 점에서도 이 일정은 예외적이었다. 그런데도 언론은 응오딘지엠과 장면의 미사 참례 소식을 간단하게 보도할 뿐, 정작 이 회동이 함의하는 바에 대해서는 침묵했다.<sup>66)</sup> 오직 가톨릭 계열의 『경향신문』만이 부통령이 국빈을 맞이하는 정부 주최의 행사에조차 제대로

62) "Tentative Program for visit of His Excellenc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Vietnam to Korea, 18-22 September 1957", Hồ sơ 8688, Mục lục 06, 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Cộng hòa,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63) 장면, 앞의 책, 55쪽.

64)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 해방에서 4월혁명까지』, 역사비평사, 2010, 174~179쪽.

65) 후일 장면은 "서울 장안이 들끓도록 환영이 벌어지고 대통령 관저에서는 공식 환영 만찬회가 베풀어지는데도 부통령만은 쏙 빼놓고 열심도 못하게 하니, 이것이 과연 타국의 원수에 대한 예의인지 알고도 모를 일"이라며 당시의 상황을 회고했다. 장면, 위의 책, 55~56쪽.

66) 「장 부통령과도 환담, '고' 대통령 미사에 참례」, 『동아일보』 1957년 9월 23일; 「고 대통령 성당서 새벽 미사」, 『조선일보』 1957년 9월 23일.

참석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응오딘지엠의 미사 참례 일정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다.<sup>67)</sup>

결과적으로, 1957년 응오딘지엠의 방한은 한국과 남베트남 간 직접적인 연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방문은 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철저하게 반공적이고 군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방문의 일정에 응오딘지엠을 초청한 한국 정부의 의도가 다분히 반영되어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는 특히 한국이 남베트남과 이룩하고자 했던 ‘연대’가 얼마나 협소하고 근시안적인 토대 위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 2. 1958년 이승만의 남베트남 방문

이승만의 남베트남 방문이 처음 준비된 시기는 1958년 4월 초로, 실제 방문이 성사된 11월보다는 6개월 이상 이른 때였다. 당시 이승만의 방문 계획은 남베트남 측에도 전달되었고, 현지에서는 국빈을 맞이할 준비에 착수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와중에 이승만이 가벼운 감기에 걸려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정일 하루 전에 방문 일정이 돌연 연기되었다.<sup>68)</sup>

그러나 한국 정부가 처음 예고한 일주일의 지나 1958년 4월 16일이 되자, 공보실에서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월남공화국 공식방문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승만 또한 응오딘지엠에게 자신의 남베트남 방문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었음에 양해를 구하는 서한을 직접 발송했다.<sup>69)</sup> 이러한 소식이 국내에도 전해지자, 언론은 조만간 새로 발표될 줄 알았던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이

67) 「국빈 영접 절차로 힐난, 정부의 실책 책임을 땀 추궁」, 『경향신문』 1957년 9월 21일; 「기자석」, 『경향신문』 1957년 9월 23일.

68) 1958년 4월 8일 오전, 공보실은 기존 9일로 예정되었던 대통령의 방월이 수일간 연기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방월 수일간 연기, 이 대통령 미양(微恙)으로」, 『동아일보』 1958년 4월 9일.

69) “Letter from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to President of Vietnam”, April 14, 1958, Hồ sơ 22545, Phủ Tổng thống Đế nhất Cộng hòa,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기약 없이 연기된 데 대한 실망과 우려를 금하지 못했다.<sup>70)</sup>

그러나 응오딘지엠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베트남의 정부와 국민 전체가 이승만 대통령 내외를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길 기대하고 있다며 이승만의 쾌유를 빌었다.<sup>71)</sup> 또한 그는 한창 준비 중이던 국가 행사가 갑자기 취소된 것임에도 “병환 이라니 안 되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뿐만 아니라 자유세계의 위대한 지도자이니 우리나라 방문은 뒤로 미뤄도 상관없으며 곧 회복되기를 빈다”는 말로 곤란해하고 있던 최덕신을 오히려 위로했다.<sup>72)</sup>

9월 10일이 되어 이승만은 응오딘지엠에게 다시 서한을 띄웠다. 이제 자신의 건강이 양호해졌으니 남베트남 측에서 제안했던 11월경에 맞추어 남베트남을 방문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였다.<sup>73)</sup> 이 서한을 받은 응오딘지엠이 기뻐하며 11월 중 어느 날이든 이승만이 편한 때에 방문해달라고 답함으로써 이승만의 남베트남 방문이 다시 양국 간의 현안으로 대두했다.<sup>74)</sup>

1958년 11월 6일, 응오딘지엠의 한국 방문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나 고령의 대통령 이승만이 사이공의 편선녓 공항을 통해 남베트남에 입국했다. 이날 이승만은 기체 결함으로 인해 도착이 지연된 까닭에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경 도착했다.<sup>75)</sup> 이에 응오딘지엠은 파격적인 기상 영접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경의를 표해 그를 맞이하며<sup>76)</sup>, 다음 연설을 발표했다.

---

70) 「방월 또 무기 연기, 이 대통령 시의들 권고로」, 『동아일보』 1958년 4월 15일; 「실망과 우려로 교착」, 『조선일보』 1958년 4월 16일; 「이 대통령 방월 또 연기」, 『경향신문』 1958년 4월 16일 등.

71) “Letter from President of Vietnam to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1958, Hồ sơ 22545, 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Cộng hòa,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72) 최덕신, 앞의 글, 133쪽.

73) “Letter from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to President of Vietnam”, September 10, 1958, Hồ sơ 22545, 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Cộng hòa,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74) “Letter from President of Vietnam to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October 9, 1958, Hồ sơ 22545, 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Cộng hòa,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75) 공보실, 『리대통령각하 방월기』, 1959, 14쪽.

76) 박실, 『벼랑 끝 외교의 승리: 이승만 외교의 힘』, 청미디어, 2014, 476쪽.

[그림 2] 환영 행사장에 서 있는 이승만과 응오딘지엠  
(출처: 대통령기록관)



각하는 자유월남을 방문한 첫 번째의 원수급 방문객일 뿐 아니라 한국 독립의 위대한 영웅입니다. (중략) 따라서 귀하의 방월이 비록 짧은 여정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 의의가 특히 큰 바입니다.<sup>77)</sup> (밑줄 인용자)

1958년 이승만이 남베트남을 방문한 것은 남베트남에 있어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 일이었다. 이승만은 1955년 응오딘지엠 정부가 출범한 이래 3년 만에 처음으로 남베트남을 방문한 외국 정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남베트남에서는 이승만의 방문을 크게 기뻐하며 그에 대한 진심 어린 환영을 아끼지 않았다.

이승만이 남베트남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현지에서는 외국 정상을 맞이하기 위

---

77) 「이 대통령 사이공 안착」, 『경향신문』 1958년 11월 7일.

한 준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준비 과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당시 남베트남 국민의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승만 환영 준비를 위해 동원된 국민 일부에게서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성대하고 열렬하게 이승만 대통령을 맞이해야 하는지’ 하는 질문이 제기되기도 했다.<sup>78)</sup>

이승만의 남베트남 방문 목적은 앞선 1957년 응오딘지엠의 한국 방문에 답방(答訪)하는 동시에 양국 간의 반공 연대 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었다. 이승만은 현지에 도착하여 응오딘지엠으로부터 한차례 환영을 받은 뒤, 다음 답사를 통해 자신의 남베트남 방문이 형제국과도 같은 남베트남과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한 유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내가 월남국을 방문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나 양국이 아세아에 있어서 형제와도 같이 맺어져 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서로가 돕는 형제라는 의미에서 보다 우리 양국은 우리들의 문명이 꾸준히 존속하도록 싸워나가는 공동체로서 더욱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유세계에 있어 한국과 월남 양국의 반공 유대를 더욱 굳게 하는 데 이번 방문이 기여한다면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sup>79)</sup> (밑줄 인용자)

이승만 또한 1957년 방한 당시의 응오딘지엠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남베트남 방문이 갖는 반공주의적 성격을 강조했다. 그러나 두 정상의 상호 방문 외교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응오딘지엠은 앞서 한국 방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공 연대와 직접 관련되는 군사 분야 외에도 산업 발전과 문화 등 한국 사회 제반의 분야에 관심을 표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남베트남의 사회 전반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표 4>의 이승만의 수행원 구

---

78) 'Tại sao chúng ta đón tiếp Tổng Thống Lý Thừa Vãn một cách trọng thể và nồng hậu', 1958, Hồ sơ 8824, Mục lục 06, 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Cộng hòa,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79) 앞의 기사, 『경향신문』 1958년 11월 7일.

성과 그의 남베트남 체류 일정을 통해 뒷받침된다.

〈표 4〉 이승만 방월 당시 수행원 명단

이승만 수행원 명단 (7名)	
조정환 외무부장관	유재흥 연합본부참모총장
김정렬 국방부장관	박찬일 경무대 비서
손창환 보건사회부장관	곽영주 경무대서 경무관
오재경 공보실장	

우선 수행원 구성의 경우, 응오딘지엠이 1957년 방한 당시 자신의 수행원 명단에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했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이승만은 자신의 수행원으로 남베트남 사회를 직접 보고 분석할 전문가를 대동하지 않았다.<sup>80)</sup> 경제, 산업, 문화 등 앞서 응오딘지엠이 관심을 보였던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해당 분야를 주관하는 재무부, 부흥부, 상공부의 장관 또한 수행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손창환 보건사회부장관이 수행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눈에 띈다. 그는 통상적으로 국가 정상 간의 만남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는 외무부나 한국과 남베트남이 구축하고자 했던 반공 연대와 직접 연관되는 국방부 인사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손창환이 이승만의 수행원에 포함되었던 까닭은 당시 그가 이승만의 주치의로 복무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그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이 아닌 대통령의 주치의로서 이승만의 남베트남 방문에 동행했다.

수행원의 규모도 전체 7인으로 비교적 단출하게 구성되어, 응오딘지엠이 총

80) 'His Excellenc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rs. Syngman Rhee Official Party', 1958, Hồ sơ 21877, Phủ Tổng thống Đế nhất Cộng hòa,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22인의 수행원을 대동했던 것과 대조되었다. <표 5>는 1958년 4월 이승만의 남베트남 방문 계획이 처음 수립될 당시의 수행원 구성안이다. 본래 19인으로 계획되었던 것이 7인으로 축소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승만이 남베트남 방문 일정을 연기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일정이 단축된 것이 그의 수행원 규모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표 5> 4월 방월 계획상의 수행원 명단(안)

이승만 수행원 명단 (19名)			
조정환 외무부장관	유재홍 연합본부참모총장	곽영주 경무대서 경무관	박희용 촬영 기사
김정렬 국방부장관	유창준 경무대 비서	남태우 경무대서 경무관	김풍환 촬영 기사
송인상 부흥부장관	박찬일 경무대 비서	장두국 경무대서 경무관	Gale Rowe 영부인 비서
손창환 보건사회부장관	박동진 외무부 1등 서기관	김창근 경무대서 경무관	Davis Wyatt 박사
오재경 공보실장	한유동 외무부 의전국장	안흥원 경무대서 경무관	

한편 수행원의 규모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장관 중에는 유일하게 송인상 부흥부장관이 제외되었다. 부흥부는 한국의 산업과 경제를 계획하고 관장하는 행정 기관이었다. 부흥부장관이 수행원에서 제외된 사실은 곧 이승만이 남베트남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분야의 우선순위에서 산업 및 경제 분야가 밀려나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이승만이 남베트남과의 연대를 도모하면서도, 응오딘지엠과 달리 군사 분야라는 지극히 한정적인 영역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음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했다.

이승만이 남베트남에서 소화한 일정 또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6>은 이승만이 남베트남에서 소화한 일정이다. 이승만은 예기치 못한 기체

결함으로 인해 현지에서 만 1박 2일이라는 다소 촉박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그는 이러한 와중에도 1년 전의 응오딘지엠과 마찬가지로 군사 분야와 관련된 행사 위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sup>81)</sup>

〈표 6〉 이승만 방월 주요일정(1958.11.06.~07.)

일 자	시 간	내 용
11/6 (목)	오전 08:00	남베트남 도착
	오전 09:15	응오딘지엠 대통령과 회담
	오전 10:00	국회 참관
11/7 (금)	오전 09:00	삼군분열식 참관
	오전 09:30	부대 사열
	오전 10:00	무명용사 묘지 헌화
	오전 11:30	기자회견
	오후 03:00	남베트남 유학자 대표단 접견
	오후 10:00	남베트남 출발

한 가지 눈에 띄는 일정은 이승만이 둘째 날 오후 중에 남베트남 현지의 유학자(儒學者) 대표단을 접견했다는 점이다.<sup>82)</sup> 남베트남의 유학자들은 이승만을 접견해 칠기와 서적 등의 기념품을 증정했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우호국인 한국의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을 깊이 경모하고 있었다”며 이승만의 남베트남 방문을 환영했다.<sup>83)</sup>

그러나 이승만은 남베트남 방문을 전후로 한 시기에 특별히 ‘유학’ 내지는 ‘유교’에 대해 언급하거나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 또한 이전까지 한국과 남베트남의 관계에서 ‘유교’와 관련된 언급이 공식적으로 있었던 것은 응오딘지엠이 자신의 수행원을 꾸릴 당시에 유교연구원장을 포함했던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이

81) ‘Chương Trình Cuộc Thăm Viếng Chánh Thức của Tổng Thống Đại Hàn Quốc Syngman Rhee tại Việt Nam Cộng Hoà’, 1958, Hồ sơ 8824, Mục lục 06, 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Cộng hòa,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82) 공보실, 앞의 방월기, 76~82쪽.

83) 「학자대표 인견, 방월 기자초대연도」, 『경향신문』 1958년 11월 9일.

일정은 이승만 본인의 의사보다는 일찍부터 한국과의 문화 교류를 염두에 두고 있던 응오딘지엠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1958년 이승만의 남베트남 방문과 1957년 응오딘지엠의 한국 방문은 유사하면서도 다른 성격으로 이루어졌다. 이승만 또한 응오딘지엠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반공주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이러한 까닭에 그가 남베트남 방문 중에 발표한 연설의 내용과 현지에서 소화한 일정 대부분도 군사 중심적이었다. 이승만과 응오딘지엠의 방문 외교는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는 반공 연대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큰 궤를 같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과 남베트남은 함께 반공 연대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범위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응오딘지엠은 한국 사회의 여러 분야에 관심을 표현했으나, 이승만은 군사 분야를 제외하면 사실상 남베트남 사회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또한 남베트남은 한국 정부가 중립주의 자체를 반대하고 '한중월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데 동조하지도 않았다. 요컨대 양국이 아시아 반공 국가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같이' 반공을 이야기한 것은 맞으나, 그것이 곧 '같은' 내용의 반공을 의미하지는 않았던 셈이다.

두 정상외교의 상호방문이 양국의 관계가 지극히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실제로 정상외교 이후 한국과 남베트남은 반공 연대를 강화한다는 공통의 목표 아래 국가 간의 교류를 지속해나갔다.<sup>84)</sup> 그러나 양국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반공 의식을 매개로 긴밀해져 가는 동시에 그 내면에서는 균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84) 한국과 남베트남은 이승만이 남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인 1958년 12월 관세협정을 체결해 양국 간 수입하는 물품에 당국의 최저관세 적용을 규정했다. 1959년 5월에는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목표 아래 한월협회(Korea-Vietnam Association)가, 같은 해 12월에는 양국의 학생들로 구성된 한월 학생회(Korean-Vietnamese Student Association)가 창립되었다. 『명년부터 발효, 한월관세협정』, 『동아일보』 1958년 12월 11일; Hồ sơ 18729, Mục lục 12, 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Cộng hòa,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 Ⅲ. 한국·남베트남의 상호 인식

#### 1. 한국 정부 지도자들의 남베트남 인식

한국의 남베트남 인식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이 아시아 반공주의의 선도자로서 신생국가인 남베트남의 반공주의를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국토가 분단된 상황에서 공산주의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남베트남에 한국전쟁 경험을 전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은 극동의 한국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시아의 반공 보루 구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다. 이승만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반공주의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고, 자신은 그러한 반공 선도국가의 수장으로서 아시아 반공의 지도자 내지는 선도자가 되기를 꿈꾸었다. 이승만 정부가 일찍부터 동남아 친선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보인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당시 이승만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한국과 동등한 지위를 지닌 이웃 국가이자 수평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한국이 포섭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이승만 정권기에 한국은 냉전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남베트남에 대한 인식 또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한국 정부는 한국과 남베트남의 관계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양국이 처한 공동운명과 그에 대한 공동투쟁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반공 연대를 공고히 다지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가 이야기한 반공 연대의 실상은 어디까지나 아시아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특정한 반공 질서를 확립하고 그 질서

안에 남베트남을 포섭시킨다는, 일종의 상하 구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그 무렵 아시아에서 인도를 중심으로 번져가고 있던 중립주의 문  
제에 특별히 촉각을 기울였다. 한국은 특히 인도의 중립주의가 동남아시아 일대  
국가들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매우 경계했다. 중립주의가 기본  
적으로 반서방주의적이며, 중국 공산당과 전면적인 외교관계를 맺을 용의까지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 세력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 그 이유  
였다. 한국 정부에 있어 중립주의는 사실상 애매하게 변형된 공산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sup>85)</sup>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남베트남이 중립국을 가까이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남베트남이 중립국과 활발하게 교  
류하거나 중립주의 노선으로 기우는 것은 곧 한국이 주도하는 반공 질서로부터  
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립주의와 중립국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이승만의 다음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일부 아아(亞阿) 국가들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투쟁의 성질을 파악하  
지 못하였다. 우리는 그 국가들에게 중립주의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  
지만,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으며 또한 기회와 형편이 허용하는 한 그와 같  
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sup>86)</sup> (밑줄 인용자)

한국 정부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반공을 견인하는 국가로 위치시키고, 남베트  
남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에는 반공의 모범을 보이고자 했다. 이러한 한국의 정  
치적 의도와 그로부터 기인한 남베트남 인식은 당시 발행된 신문의 사설에서도  
잘 드러난다.

---

85) 김예림, 「1950년대 남한의 아시아 내셔널리즘론: 동남아시아를 정위(定位)하기」, 『아세아연구』  
55, 2012, 152쪽.

86)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서」 1959년 2월 3일, 공보실, 앞의 답화집, 79쪽.

오(응오딘지엠) 대통령이 중립노선으로 끌리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진대, 그를 바른길로 인도해서 미로에 헤매는 월남을 구원해주는 것은 이 대통령의 거룩한 사명이요 (중략) 월남이 강력한 일원으로서 집단적인 반공 기구를 만드는 데 중역을 담당하도록 큰转机(轉機)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sup>87)</sup> (밑줄 인용자)

이 대통령의 이번 월남 방문은 한·월 양국 간의 형제적인 우의를 긴밀히 할 뿐만 아니라 동남아 제(諸) 반공 국가들에게 커다란 고무가 되는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반공 자유진영의 단결을 위하여 큰 의의가 있다고 보는 바이다.<sup>88)</sup> (밑줄 인용자)

한국 정부는 또한 한국전쟁 등 한국의 대공 투쟁 경험을 바탕으로 남베트남의 모델이 되고자 했다. 실제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무렵부터 한국군은 남베트남군의 모델로 상정되었다. 이는 남베트남에 대공 투쟁의 사표(師表)가 되고자 했던 한국 정부의 의지와 한국전쟁의 경험을 참고하고자 했던 남베트남 정부의 의지가 서로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이에 따라 1953년 봄에는 응우옌반힌 남베트남 참모총장이 한국군 부대를 시찰하고 돌아갔다. 이듬해인 1954년 4월에는 불월(佛越) 연합의 장교단이 미국식 훈련 방법을 시찰할 목적으로 한국군을 찾았으며, 1957년 9월에도 남베트남의 육군 장교 60여 명이 한국에 파견되어 약 1년간의 군사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기도 했다.<sup>89)</sup>

이승만 정부는 한국을 과거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남베트남이 지향해야 할 모델로 위치시키고자 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한국전쟁의 경험을 남베트남의 상황에 이식시키고자 하기도 했다. 한국은 남베트남의 국토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

87) 「이 대통령의 방월과 그 의의」, 『동아일보』 1958년 4월 8일.

88) 「한·월 양국의 긴밀한 제휴에 기대」, 『경향신문』 1958년 11월 5일.

89) 윤충로, 앞의 논문(2013), 262쪽.

북부 지역이 공산 세력의 점령하에 있는 점, 북쪽의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꾸준히 위협받고 있는 점, 그리고 국토 통일을 위한 현실적이고 명확한 방안이 당장 부재한 점 등이 한국과 유사하다고 보았다.<sup>90)</sup>

이러한 분위기 안에서 한국의 언론도 남베트남의 상황이 “삼억 육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국” 인도보다는 “공산지대와 자유지대가 분립·상쟁” 중인 한국과 더 유사하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다음 사설을 게재했다. 요지는 남베트남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조장하는 중립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도는 삼억 육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국이고 월남처럼 공산지대와 자유지대가 분립·상쟁하고 있지 않으니까 (중략) 월남같이 북방에 공산도당이 진을 치고 호시탐탐 남쪽을 노려보고 있는 때에 그러한 인도의 흉내를 내려다가는, 현재 인도네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적화보다 더 큰 적화에 보다 더 거뜰히 휩쓸릴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sup>91)</sup>

이승만 정권기에 한국은 남베트남을 반공 연대로 묶인 우방이자 형제국가로 묘사하며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끊임없이 부각했다. 이는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계의 주요 인물들의 발언뿐만 아니라 당시의 신문 기사와 사설 등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지점이다. 한국은 한국과 남베트남을 ‘공동운명’에 묶인 관계로 규정하고, 남베트남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더욱 강경한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대공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 정부는 신생 반공 국가인 남베트남을 한국의 대공 투쟁 경험을 전승하고, 한국이 이끄는 방향으로 인도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하기

90) 1957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남베트남의 사이공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민족반공대회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가한 공진항은 “자유 월남은 북위 17도선으로 국토가 양분되어 북에 공산 월맹이 남침의 야망을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6·25전쟁 직전의 대한민국의 사정과 비슷한 바 있다고 보며, 이러한 실정을 세계의 자유 우방 국가들에게 선전하는 동시에, 또한 그들의 관심을 이끄는 것이 곧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발언했다. 최상수, 『韓國과 越南과의 關係』, 韓越協會, 1966, 216~217쪽.

91) 앞의 사설, 『동아일보』 1958년 4월 8일.

도 했다. 한국 정부에 있어 신생국가인 남베트남은 함께 반공 연대를 도모하는 우방이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에 의해 더욱 강경하고 확실한 반공주의 노선을 걸을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이러한 한국의 남베트남 인식은 이후 양국의 관계에서 한국이 보인 적극적인 태도로 표출되기도 했다.<sup>92)</sup>

실제로 한국 정부는 남베트남과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남베트남의 사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초대 남베트남 공사였던 최덕신은 후일 이승만이 자신이 남베트남에서 보낸 모든 보고서를 확인한 뒤 촌평을 빠뜨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승만은 응오딘지엠 정부의 혈연정치가 미국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을 때는 해당 기사를 오려 최덕신에게 보내며, 미국도 알고 있는 내용을 자신이 뒤늦게야 안 것에 대해 책망하기도 했다.<sup>93)</sup> 그러나 이는 응오딘지엠 정부의 인사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나 우려라기보다는 현지의 사정을 본국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최덕신 개인에 대한 문책에 가까웠다.

정리하자면, 이승만 정권기 한국의 남베트남 인식은 남베트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주도적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스스로를 아시아 반공의 사표로 위치시키고자 하기도 했다. 이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이끄는 반공 질서를 구축하고, 한국의 경험을 남베트남에도 전달하고자 했던 당시 한국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남베트남은 결코 한국이 의도한 바대로 움직이기만 하는 객체가 아니었다. 남베트남의 정부 지도자들은 한국과 반공 연대를 구축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제사회에서 신생국가인 남베트남을 자리매김할 자구책을 도모하고자 했다.

---

92) 한국은 남베트남이 한국과 대만의 극단적인 반공주의에 대해 동조하지 않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중월 삼국 간의 군사동맹을 구상해 제안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등 끝까지 남베트남을 설득하고자 하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원래는 국부(國府)의 제창」, 『조선일보』 1956년 7월 29일; 「월남, 군맹 불참?」, 『동아일보』 1956년 7월 30일.

93) 이승만은 미국의 신문에서 오려낸 종이쪽지를 동봉하여 “월남 정부는 지금 가족정치(혈연정치)를 하고 있어 말썽이었는데, 자네는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사실을 어찌 보고하지 않았는가?”라며 문책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최덕신, 앞의 글, 130쪽.

## 2. 남베트남 정부 지도자들의 한국 인식

남베트남 정부 지도자들 역시 한국과의 외교를 통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할 반공 연대를 이룩하고자 했다. 그러나 남베트남 측은 한국 정부의 정책에 마냥 동조하기보다는 나름대로 한국과 이승만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견지하고 있었다. 특히 이승만 정부의 편협한 외교 노선과 안일한 내치가 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에 대한 남베트남의 비판적인 인식은 1960년 4월혁명 당시 작성된 정부 문건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당시 남베트남은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당면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찍부터 이승만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는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sup>94)</sup> 남베트남 정부 지도자들은 한국과 남베트남의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 내재하고 있던 문제점과 이승만 정권이 붕괴한 원인을 진단하고자 했다.<sup>95)</sup>

우선 외교 부분부터 살펴보자면, 남베트남은 무엇보다도 이승만의 극단적인 반공주의와 그가 주장하는 무력통일정책에 부정적이었다. 남베트남은 이승만의 반공주의가 민생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북진통일론과 같은 부차적인 면에만 국한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남베트남은 이승만이 계속해서 무력을 사용해 통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우방으로서 우려를 표했다.<sup>96)</sup>

---

94) 한국에서 4월혁명이 발발하자, 응오딘지엠은 당시 남베트남에 주재 중이던 한국대사 최덕신을 불러들여 4월혁명이 발발하게 된 원인에 대한 대사의 의견을 물으며 자세히 추궁하기도 했다. 최덕신, 앞의 글, 131쪽.

95) 남베트남은 한국에서 4월혁명이 발발한 원인으로 1. 입법부 내의 정당 간 갈등, 2. 행정부 내의 대통령과 부통령 간의 갈등, 3. 정부의 편협한 대내·외 정책, 4. 실업과 세대교체 문제 등 젊은 세대의 사회 불만, 5. 외국군(주로 미군) 주둔의 다섯 가지를 꼽았다. 'Nhận định về cuộc Khủng hoảng chính trị tại Đại Hàn', May, 1960, Hồ sơ 2930, Tổng Nha Quan thuế Việt Nam,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96) 'Nhận định về cuộc Khủng hoảng chính trị tại Đại Hàn', 위의 자료.

남베트남 정부는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야만 실질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곧 적극적인 차원의 반공이라고 보았다.<sup>97)</sup> 무력을 통한 북진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한 반공주의라는 것이 이승만 정부의 정책에 대한 남베트남의 견해였다. 즉, 당시 이승만 정부는 강경한 반공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으나, 역설적으로 남베트남에서는 이를 오히려 편협하고 소극적인 반공주의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베트남 정부 지도자들은 일찍부터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남베트남의 지위를 인정받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공산주의 세력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반일주의는 이러한 남베트남 정부의 외교정책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남베트남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여전히 일본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았다. 일본 정부와 협력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손해라는 것이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남베트남 정부의 인식이었다.

남베트남 정부는 응오딘지엠이 한국 방문을 준비하던 시점에도 이승만 정부의 대일외교에 한 차례 주목한 바 있다.<sup>98)</sup> 두 정상의 상호 국가 방문에 앞서, 상대 국가와 그 나라 정상에 대한 이해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남베트남은 이승만의 외교정책에도 관심을 가졌다. 당시 남베트남 정부는 이승만이 아시아의 보루로서 영웅적인 역할을 맡고자 하며, 서방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이 아닌 한국을 지원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승만 정부의 주요 외교정책으로 꼽았다.

남베트남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식민 통치를 경험한

---

97) 남베트남은 4월혁명 이후에도 새로 수립된 허정 과도정부가 반공주의를 표방하는 동시에 민주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한국 정부의 동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Phúc trình Ông Bộ Trưởng Ngoại Giao', June 4, 1960, Hồ sơ 9096, Mục lục 06, 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Cộng hòa,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98)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A Brief Biography of President Syngman Rhee)', 1957, Hồ sơ 8688, Mục lục 06, 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Cộng hòa,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국가라는 점에서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남베트남의 시선은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 수 없다. 남베트남 정부는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뒤 외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경제 및 재정과 관련된 주권을 되찾아왔으나, 그와는 별개로 정치, 무역, 기술 등의 분야에서는 외교관계를 지속했다.

요컨대 남베트남 정부가 추구하던 반공주의는 결국 북베트남과의 군사적 경쟁보다는 사회 제반의 수준을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겠다는 일종의 체제 경쟁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이는 남베트남의 반공주의 노선이 이승만 정부가 견지하던 극단적인 멸공적 반공주의 노선과는 애초에 지향하는 바가 달랐음을 의미한다.

또한 남베트남은 1954년 제네바 회담 이래 계속해서 외교관계를 확장하고, 중립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그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는 데 힘썼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중립을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언제든 공산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한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sup>99)</sup>,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립국과의 외교에 소극적으로 일관했다.<sup>100)</sup> 이는 곧 한국과 남베트남이 추구했던 외교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것이었음을 방증한다. 응오딘지엠은 방한 당시에도 공산주의 세력을 규탄하고, 아시아 반공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반공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는 한국 정부와 뜻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중립주의나 군사동맹에 대해서만큼은 침묵했다.

한편, 이승만 정부의 내치와 관련하여 남베트남 정부가 주로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부분은 한국 정부 지도자들이 국민의 삶과 정서를 지나치게 안일하게 여긴다는 것이었다.<sup>101)</sup> 남베트남은 특히 한국전쟁 정전 협정 체결 이후로도 외국

99) 김예림, 앞의 논문, 152~153쪽.

100) 1957년부터 이승만 정부도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중립국을 상대로 친선사절단을 파견했다. 그러나 이는 반식민과 평화의 가치에 대한 공감이나,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표결에서 중립국의 기권표를 줄이기 위한 정치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김도민, 앞의 논문, 100~125쪽.

101) “Thông Tư Ủy Ban Lãnh Đạo Học Tập Trung Ương kính gửi Quý vị Trưởng Ban Hướng Dẫn Học Tập Các Đơn Vị Quân Dân Chính Toàn Quốc”, May 10, 1960, Hồ sơ 20363, Mục lục 13, 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Cộng hòa,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군이 한국에 남아 주둔해있는 상황에도 주목했다. 남베트남은 “비록 우방국의 군대라고 할지라도 나라 안에 외국군이 주둔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이 외국군에 지나치게 의존해 통일과 국가 건설을 위한 단결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sup>102)</sup>

외국군 주둔 문제에 대한 남베트남의 비판적인 인식은 4월혁명이 발발하기 훨씬 이전부터도 확인된다. 1957년 11월 응오딘지엠은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에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월남은 외국에서 제공되는 군사기지를 받아들이지 않을뿐더러 그의 영토 내에 외국 군대를 주둔시키지도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다.<sup>103)</sup> 응오딘지엠이 우방국으로부터 ‘제공되는 군사’ 조차 받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은 이승만이 어떻게 해서라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지연시키고자 했던 것과 또 한 번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뿐만 아니라 남베트남이 ‘한중월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한국과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는 사실은 이미 앞서서도 살펴본 바 있다. 1956년부터 한국 정부는 한중월 삼국의 군사동맹을 구상하고, 한국 중심의 반공 질서에 남베트남을 포섭하고자 했다. 그러나 응오딘지엠은 남베트남이 한국, 대만과 군사동맹을 체결하는 것이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위반이 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난색을 보였다.<sup>104)</sup>

하지만 응오딘지엠이 통일베트남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거부함으로써 이미 한차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그가 ‘한중월 군사동맹’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당시 남베트남은 미국이 주도하는 SEATO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응오딘지엠의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군사동맹 체결이 절실하지 않았던

---

102) “Thông Tư Ủy Ban Lãnh Đạo Học Tập Trung Ương kính gửi Quý vị Trưởng Ban Hướng Dẫn Học Tập Các Đơn Vị Quân Dân Chính Toàn Quốc”, 위의 자료.

103) 「씨토에 불가입, 월남 대통령 언명」, 『동아일보』 1957년 11월 11일.

104) Ngo Dinh Diem's Replies to Queries of Newspapermen', September 21, 1957, Hồ sơ 18316, 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Cộng hòa,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것도 응오딘지엠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sup>105)</sup>

남베트남은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기를 희망했으며, 실제로 이승만 정권기 양국의 관계는 친밀했다. 남베트남 정부는 한국과 남베트남이 식민 통치를 받았고, 독립 후에는 영토가 분할되었으며, 북쪽의 공산주의 세력과 대치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두 나라가 유사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만의 방침과 정책을 명확히 구분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곧 양국이 반공주의라는 공통된 이념을 공유하고 있었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추구하는 방향은 사뭇 달랐음을 보여준다. 1950년대 한국과 남베트남은 영토가 분단된 상황에서 각각 북한과 북베트남의 공산주의 정권과 대립하고 있었다. 두 국가 모두 국토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각자가 염두에 둔 방안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승만은 계속해서 북진통일론을 주장하며 무력으로써 통일을 완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비록 이승만이 주장한 북진통일론은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했으나, 무력의 사용을 강조함으로써 군사주의적인 분위기를 조장하여 우방 국가조차 우려하는 상황을 야기했다.<sup>106)</sup> 그러나 남베트남의 응오딘지엠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무력 통일보다는 우선 외교를 통해 남베트남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그것을 근간으로 하는 통일을 지향했다.

앞서 응오딘지엠이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인도를 방문해 네루와 회담하고, 외국군 주둔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응오딘지엠은 북진이나 북베트남과의 군사적 충돌을 통한 통일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한국과 남베트남이 취한 정책의 차이는 근본적으

---

105) 창설 당시 SEATO의 회원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태국, 파키스탄의 8개국이었지만, 보호 대상에는 남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106) 홍석률, 앞의 논문(2022), 245~246쪽.

로 ‘각자가 대치 중인 북한과 북베트남을 상대로 어떻게 반공 투쟁을 전개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내놓은 양국의 의견 차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남베트남 정부 지도자들의 한국 인식에서 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승만 정부의 외교 노선과 내치의 문제도 결국은 반공 투쟁의 전개 과정에서 다루어진 하위의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 맺음말

이승만은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국내외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 강경하고 배타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한국을 아시아의 반공 보루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하위동맹국으로서 단순히 반공주의를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서기를 원했다. 이승만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이끄는 반공 질서를 확립하고, 그 안에 다른 아시아 반공 국가들을 포섭함으로써 한국을 반공 선도국의 지위로 끌어올리고자 했다.

남베트남은 응오딘지엠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이전부터 한국이 주도하는 반공대회에 자국의 정치인이 포함된 다수의 대표를 파견하며 아시아의 반공 연대에 관심을 보였다. 남베트남은 일찍부터 이승만 정부가 주창한 반공통일전선과 반공 국가 간의 연대 구축에 주목했다. 당시 남베트남은 북베트남의 공산주의 정권과 대치 중에 있었으므로 그와 유사한 상황에 있던 한국과 반공에 대한 이해를 같이했다.

한국과 남베트남은 서로가 처해 있는 상황의 유사성을 토대로 하여 초반부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1955년 10월 26일 응오딘지엠이 바오다이를 몰아내고 남베트남의 수립을 공식으로 선포하자, 이승만은 그 이튿날 응오딘지엠 정부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은 신생 반공 국가의 출범을 앞장서서 환영하며, 남베트남과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한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한국과 남베트남의 우호적인 관계는 1957년과 1958년에 이루어진 양국 정상 간의 상호 방문 외교를 통해 절정에 달하는 듯 보였다. 두 정상의 방문 외교에는 유사한 점이 많았다. 이들은 한국과 남베트남의 공동운명을 강조하고, 두 나라가 북한과 북베트남을 비롯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해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

장했다. 또한 두 정상 모두 군사 분야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순방 일정에서도 잘 드러난 바 있다.

이승만과 응오딘지엠은 상호 국가를 방문함에 있어 군사 분야와 관련된 일정 위주로 소화하는 공통점을 보였다. 1950년대 이승만의 한국군 인도차이나 파병 제안 및 군사 분야에 대한 이승만과 응오딘지엠의 관심은 이후 박정희 정권기에 이루어진 한국군 베트남 파병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군이 실제로 베트남에 파병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양국 간에는 군사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남베트남의 관계가 마냥 상합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양국의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그 내부에서는 다양한 균열의 지점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국과 남베트남의 반공 연대가 내부로부터 균열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시기 양국 정부의 지도자들이 각각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었는지를 통해 확인된다.

한국에 있어 남베트남은 함께 대공 투쟁을 전개해야 할 우방 국가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 의해 더 강력한 반공주의 노선으로 인도되어야 할 존재였다. 한국 정부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는 반공 질서를 구축하고, 남베트남에 과거 한국전쟁의 경험을 이식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또한 남베트남이 인도와 같은 중립주의 노선으로 '탈락'하게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남베트남은 한국의 대외관계와 내정이 노정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반면교사 삼고자 했다. 남베트남 정부는 특히 이승만 정부의 반일주의와 소극적인 중립국 외교에 비판적이었으며, 한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 외국군을 주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내치의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남베트남 정부 지도자들은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에도 부정적이었다. 이는 유사한 상황에서도 양국이 추구했던 반공주의와 통일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달랐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냉전기 제3세계 국가들의 횡적 교류와 그들이 주도했던 움직임을 이승만과 응오딘지엠의 방문 외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냉전기 한국과 남베트남은 모두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하위동맹국이었으나, 제3세계 반공 국가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능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과 남베트남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반공 연대를 도모했지만, 이들이 이야기했던 반공은 그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승만과 응오딘지엠은 제3세계 반공 국가의 지도자로서 횡적인 교류를 통해 극동과 동남아시아를 잇는 반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했다. 이들이 아시아 반공 국가 간의 연대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보인 움직임은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했던 냉전기 제3세계 국가의 주체성을 잘 보여준다. 이들은 자유진영 내에서 각자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맺는 관계와는 별개로, 진영 내 약소국가 간의 수평적인 관계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승만과 응오딘지엠 사이에도 반공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통일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했다. 이들이 함께 아시아에서의 반공 투쟁을 강조하기는 했으나, 대체로 반공주의에 대한 이승만의 견해가 응오딘지엠의 견해보다 더 극단적이었다. 이러한 균열의 지점은 냉전기 제3세계 국가의 주체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경우였다. 즉, 앞서 한국 정부가 더 주도적인 자세로 임했던 양국의 관계가 냉전기 한국의 주체성을 보여주는 사례였다면, 이 관계 안에서의 균열은 남베트남의 주체성을 더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조명하고자 한 1950년대 한국과 남베트남의 정상외교는 제3세계를 부차시하는 전통적인 냉전사 서술 하에서 유의미하게 다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었다. 본 논문이 냉전기 제3세계 국가의 주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향후 이 주제에 대한 더 다양한 층위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1) 한국 자료

〈신문·잡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外交春秋』

〈자료집〉

공보실,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제3집』, 1959.

공보실, 『리대통령각하 방월기』, 1959.

공보처,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1953.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1948-1978』, 1979.

〈정부문서〉

외무부, ‘대사파견-월남’, 1956~1958, 베트남, 711.1, 20, B-0001.

외무부, ‘Ngo Dinh Diem(고딘디엠) 월남 대통령 방한, 1957.9.18.-22’,

1957, 베트남, 724.12, 114, C-0002.

〈회고록〉

장면, 『한알의 밀이 죽지 않고는: 장면 박사 회고록』, 가톨릭출판사, 1999.

## 2) 미국 자료

〈정부문서〉

Department of State, RG 84,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52-1963 [Entry UD 2828A].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9*,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Vol. 7.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Africa and South Asia, Vol. 18.

## 3) 베트남 자료

〈정부문서〉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Tổng Nha Quan thuế Việt Nam, Hồ sơ 2930.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Cộng hòa, Hồ sơ 8688, Mục lục 06.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Cộng hòa, Hồ sơ 8824, Mục lục 06.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Cộng hòa, Hồ sơ 9096, Mục lục 06.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Cộng hòa, Hồ sơ 18316.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Cộng hòa, Hồ sơ 18729, Mục lục 12.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Cộng hòa, Hồ sơ 20363, Mục lục 13.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Cộng hòa, Hồ sơ 21877.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Cộng hòa, Hồ sơ 22545.

## 2. 단행본

도미엔, 『붉은 혈맹: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전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박실, 『벼랑 끝 외교의 승리: 이승만 외교의 힘』, 청미디어, 2014.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1948~1950 민주주의·민족주의 그리고 반공주의』, 역사비평사, 2008.

\_\_\_\_\_, 『이승만과 제1공화국: 해방에서 4월혁명까지』, 역사비평사, 2010.

윤충로, 『베트남과 한국의 반공독재국가형성사』, 선인, 2005.

장세진, 『슬픈 아시아: 한국 지식인들의 아시아 기행(1945~1966)』, 푸른역사, 2012.

최상수, 『韓國과 越南과의 關係』, 韓越協會, 1966.

Hogan, Michael J. *A Cross of Iron: Harry S. Truman and the Origins of the National Security State, 1945-1954*,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Westad, Odd A.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李鍾元, 『東アジア冷戦と韓米日關係』, 東京大學出版會, 1996.

### 3. 연구논문

- 권윤서, 『대한민국 건국 전후기의 이승만외교의 성격에 관한 연구: 1945~1950년간의 대미외교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김도민,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 김예림, 「1950년대 남한의 아시아 내셔널리즘론: 동남아시아를 정위(定位)하기」, 『아세아연구』 55, 2012.
- 노기영, 『이승만정권의 태평양동맹 정책과 한미일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_\_\_\_\_, 「이승만정권의 태평양동맹 추진과 지역안보구상」, 『지역과 역사』 11, 2002.
- 도미엔, 「베트남 소재 남·북한 관련 자료: 베트남전쟁기(1954-1975)를 중심으로」, 『군사』 96, 2015.
- \_\_\_\_\_, 『베트남전쟁기 한반도와 베트남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 박정근, 『1957년 한국의 주터키대사관 설치와 對중동외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 박진희, 「이승만의 대일인식과 태평양동맹 구상」, 『역사비평』 76, 2006.
- \_\_\_\_\_, 「한, 일 양국의 한일협정 반대운동 논리」, 『기억과 전망』 16, 2007.
- 송재경, 「이승만 박정희 정부의 한국군 베트남 파병 추진과 국회의 대응 - 의 용군 파병논의를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 116, 2020.

- 운동현, 『李承晩 外交의 變遷過程과 內容分析: 對美外交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86.
- 윤충로, 「베트남전쟁 시기 한·미·월 관계에서 한국의 ‘정체성 만들기’」, 『담론 201』 9, 2007.
- \_\_\_\_\_, 「20세기 한국의 대 베트남 관계와 인식: 1945년 해방 이후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97, 2013.
- 이관후, 『국가형성기의 한국 민족주의: 한국 전쟁과 통치 이념의 변화 - 일민주의에서 반공주의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 최영호, 「이승만 정부의 태평양동맹 구상과 아시아민족반공동맹 결성」, 『국제정치논총』 39, 1999.
- 홍석률,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과 냉전외교정책」, 『한국사연구』 85, 1994.
- \_\_\_\_\_, 「냉전의 예외와 규칙 - 냉전사를 통해 본 한국 현대사」, 『역사비평』 110, 2015.
- \_\_\_\_\_, 「한국전쟁기 중국군에 대한 이승만의 인식과 대응」, 『역사비평』 140, 2022.
- Watt, Alan. “The Geneva Agreements 1954 in Relation to Vietnam”, *The Australian quarterly* 39(2), 1967.

## ABSTRACT

### Anti-Communist Solidarity and Division in South Korea-South Vietnam Relations in the 1950s

- Focusing on the mutual visits of Syngman Rhee and  
Ngo Dinh Diem -

Seo, Hyein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movement of Third World anti-communist countries and their horizontal interactions, focusing on the mutual visits between Presidents of South Korea and South Vietnam in the 1950s.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Third World nature of the Cold War, highlighting the solidarity that South Korea and South Vietnam, as subordinate allies of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old War, sought to achieve among Third World nations, as well as the underlying points of division.

From the early stages of South Vietnam's establishment, the Syngman Rhee government in South Korea emphasized the

similarities in the situations faced by South Korea and South Vietnam, expecting South Vietnam to establish itself as a powerful anti-communist nation like South Korea. South Vietnam, even before forging formal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clearly defined its identity as an emerging anti-communist country by actively showing interest in APACL(Asian Peoples Anti-Communist League) led by South Korea.

In September 1957, Ngo Dinh Diem visited South Korea first, and the following year in November 1958, Syngman Rhee visited South Vietnam. The visits of the two leaders had similarities but took place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Both Ngo Dinh Diem and Syngman Rhee focused their schedules on military matters during their visits. The joint statements made by the two leaders during their visits also emphasized the need for anti-communist solidar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while discussing anti-communist solidarity together, South Korea and South Vietnam differed in their positions regarding the scope and specific details. While Ngo Dinh Diem showed his interest in various fields of Korean society, Syngman Rhee showed little interest in South Vietnamese society outside of the military sphere. Furthermore, South Vietnam did not support Korea's opposition to neutralism itself or its pursuit of the military alliance between Asian countries.

These points of division are evident in the mutual perceptions of the leaders of both countries' governments. The leader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viewed South Vietnam as a friendly nation with which they should jointly carry out the struggle against communism in Asia, but at the same time, they perceived it as an existence that should be guided by Korea toward a more powerful anti-communist path. The leaders of the South Vietnamese government evaluated Korea's passive diplomacy and extreme anti-communism negatively.

The mutual visits and perceptions between the leaders of South Korea and South Vietnam demonstrate the subjectivity of both countries as Third World anti-communist nations. The relationship and solidarity-build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which South Korea took a more proactive stance, showcased the subjectivity of South Korea during the Cold War. Furthermore, the divisions within this relationship were cases where the subjectivity of South Vietnam during the same period became more apparent.